

碩士學位論文

濟州市 高等學生의 經濟 認知力 實態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龍 炯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高 勝 武

2000 年 8 月

# 濟州市 高等學生의 經濟 認知力 實態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龍 炯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0 年 6 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高 勝 武

高勝武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0 年 7 月 日

審查委員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抄錄>

## 濟州市 高等學生의 經濟 認知力 實態에 관한 研究

高 勝 武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朴 龍 炯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등학교 경제 교육의 내실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내 6개 고등학교 남·여 726명을 대상으로 46개 문항으로 구성된 경제 인지력 검사 수정판 (TEL)을 조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인지력 검사에서 제주시 고등학생들이 얻은 평균 점수는 24.30점이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2.83점이다. 공통사회와 경제 두 과목을 모두 학습한 학생들은 두 과목 모두 학습하지 않거나 공통사회 한 과목만을 학습한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 개념 영역별로 고찰해 보면, 기초적 경제 개념들과 미시 경제학적 개념들에 대한 인지력 수준은 평균보다 높았으나, 거시 경제학적 개념들과 국제 경제학적 개념들에 대한 인지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認知 段階別로는 低級의 認知的 目標라고 할 수 있는 ‘知識’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高級思考力의 認知的 目標라 할 수 있는 ‘分析’과 ‘評價’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표본 특성별로 경제 인지력 수준을 고찰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앞섰다. 계열별로는 일반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월등히 나은 성적을 보였다. 진학 희망별로는 진학을 희망하는 학

생들이 희망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약간 앞섰으나 유의미한 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제 인지력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학교 성적 수준별로는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경제 인지력도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아버지) 직업별로는 무응답의 학생들을 제외하면 회사원의 자녀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어·임·축산업, 공무원 및 금융업, 판매·서비스업, 제조·건설·토목업,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대체로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인지력도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 인지력도 높게 나타났으나,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자녀들의 경우는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넷째, 다른 지역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전체 평균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제 학습 정도별로 비교하여 보면, 경제를 배우지 않은 비학습 집단은 제주시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얻었으나 경제를 배운 집단은 제주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경제 교육의 內實化를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중 경제 분야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충분한 학습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둘째, 학교 경제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학생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의 편찬과 다양한 학습 자료가 제작·보급되어야 한다.

셋째, 충실한 職前敎育과 지속적인 現職研修를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 目次

I. 序 論 .....	1
II. 理論的 背景 .....	4
1. 經濟 認知力의 概念 .....	4
2. 經濟 認知力의 決定 要因 .....	5
3. 學校 經濟教育의 性格과 目標 .....	16
III. 研究 方法 .....	20
1. 調查 道具 .....	20
2. 標集 .....	25
3. 資料 處理 .....	28
IV. 研究 結果와 論議 .....	30
1. 經濟 認知力 水準 .....	30
2. 經濟 概念別 經濟 認知力 水準 .....	32
3. 標本 特性別 經濟 認知力 水準 .....	43
4. 經濟 認知力 水準 比較 分析 .....	52
V. 結 論 .....	54
參考文獻 .....	58
英文抄錄 .....	61
附錄 .....	63

## 表目次

<표 1>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선택 과목 현황 .....	8
<표 2>	제6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 .....	10
<표 3>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 .....	13
<표 4>	교육과정 시기별 고등학교 주요 과목의 시간 비중 추이 .....	14
<표 5>	TEL (A형)의 내용과 인지 단계별 문항 분포 .....	21
<표 6>	TEL과 KVTEL의 신뢰도 비교 .....	24
<표 7>	표집 학습수 .....	25
<표 8>	질문지 실시 및 회수 .....	26
<표 9>	표본의 특성 .....	26
<표 10>	제주시 학생들의 경제 인지력 수준 .....	31
<표 11>	점수별 빈도수 및 백분율 .....	31
<표 12>	문항별 정답률 및 반응 분포 .....	32
<표 13>	경제 개념 영역별 정답률 .....	40
<표 14>	인지 단계별 경제 인지력 수준 .....	42
<표 15>	성별 경제 인지력 비교 .....	43
<표 16>	계열별 경제 인지력 비교 .....	44
<표 17>	진학 희망 여부별 경제 인지력 비교 .....	45
<표 18>	학년별 경제 인지력 비교 .....	46
<표 19>	학교 성적별 경제 인지력 비교 .....	47
<표 20>	보호자 직업별 경제 인지력 비교 .....	48
<표 21>	보호자 학력별 경제 인지력 비교 .....	49
<표 22>	보호자 소득 수준별 경제 인지력 비교 .....	50
<표 23>	경제 관련 과목 학습별 경제 인지력 비교 .....	51
<표 24>	평균 점수 비교 .....	52

# I. 序 論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내리는 의사 결정은 대부분 경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도 직감과 경험으로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며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대규모화된 사회에서 직감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경제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민주 시민은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대량 실업의 문제, 그리고 구조 조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이 속출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결정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 모두가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평가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여 국민 경제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공의 경제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경제에 대한 기본 원리의 이해와 논리적 사고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 교육은 학생들에게 시장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시키며, 경제 현상과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생산자로서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의 구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제 지식의 습득과 경제 의식·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경제 교육은 주로 社會科 教育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사회 교과와 공통 필수인 공통사회 과목과 과정보다 필수(시·도 선택)인 경제 과목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도 선택인 경제 과목은 일부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만 채택하여 이수하고 있고,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공통사회 수준에서 경제 교육을 마치고 있는 실정이다.

敎養選擇敎科로서 생활경제 과목이 있지만, 대학 입시나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현행 경제 교과서는 내용이 어렵고 대학의 경제 원론 교과서를 축약해 놓은 것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1)</sup> 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경제는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학교에서의 경제 교육이 과연 내실 있게 실시되어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제주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經濟 認知力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등학교 경제 교육의 내실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개념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학생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현장의 경제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미국에서 개발된 평가 도구를 한국어로 번역 사용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1) 김영용(1997), “경제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올바른 경제 교육을!」, 자유기업센터, pp 20-31



둘째, 검사 시행이 4월 초에 이루어진 결과 표본 추출에서 경제 과목을 학습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과소 추출되었고, 검사 대상 학생들의 경제 인지력 수준을 전체적으로 낮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고등학교 학생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II. 理論的 背景

### 1. 經濟 認知力의 概念

이 연구에서 말하는 經濟 認知力(economic literacy)은 經濟 理解力이라고도 하며, 이는 經濟 概念(concept) 혹은 概念群(concept cluster)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sup>2)</sup>

經濟 認知力이란 용어는 이 연구의 도구로 사용된 經濟 認知力 檢査(Test of Economic Literacy)에서 연유한 것으로, B. S. Bloom의 목표 분류에 따르면 認知的(cognitive) 目標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 검사 도구의 개발자들은 46개의 문항을 Bloom의 인지 목표 차원에 의거 지식, 이해, 적용, 분석, 평가 등 5단계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5단계 인지 분류 체계는 Bloom의 6단계 인지 분류 체계를 원용하되 원래의 모형에서 종합 단계를 제외시켜 구성한 것이다. 원래의 6단계 인지 분류 체계에서 종합 단계를 제외한 이유의 하나는 고등학교 경제학 강좌에서 종합이라는 인지 단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四肢選多型 문제를 통해서 종합 단계를 측정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sup>3)</sup>

따라서 經濟 認知力은 인지적 목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제 내용에 관한 지식 또는 경제 개념에 관한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다.

---

2) 선흥렬(1993), “한국고등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및 그 결정 변인에 관한 실증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p.4-5.

3) 김경근(1993), 「韓國 高等學生の 經濟 認知力 實態」,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p.45

## 2. 經濟 認知力의 決定 要因

교육을 ‘인간 행동 특성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sup>4)</sup>으로 규정할 때, 경제 교육은 教師, 學習者, 教育課程, 學校環境 等の 教育內的 요인과 社會環境, 未來展望, 經濟理論, 價值觀 等の 教育外的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sup>5)</sup>

사회 환경이나 미래 사회의 전망, 경제 이론 그리고 가치관 등 教育外的 요인은 학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종의 여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논의는 教育內的 要因에 한정하기로 한다. 教育內的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와 학습자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으며, 학습자의 학습 동기가 유발되지 않으면 교육 현상은 사실상 와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요인에 대한 개선의 논점은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학생들에게 경제 학습에 대한 誘因(incentive)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그리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육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教育課程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1) 教師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교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교사의 질을 높이는 일이고 이를 위한 교사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다. 특히 사회과 교사는 사회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직접 시민성과 관계되기 때

---

4) 황정규(1998), 「학교 학습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pp 34-46.

5) 김정호(1997), “경제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올바른 경제 교육」, pp 45-46

문에 다른 교과와 교사와 비교해 독특한 역할과 자질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합리적인 경제생활과 의사 결정 능력을 신장시키는 경제 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과 교사는 교육학에 대한 이론적 학식과 사회과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에 필요한 실천 능력은 물론 경제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경제를 담당하는 사회과 교사들의 대학에서의 경제학 훈련은 매우 부족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가운데 경제학이나 유사 학문을 전공한 비율은 1/5이 채 안 된다<sup>6)</sup>.

그리고 중등 사회과 교사 중 대학 과정에서 경제 관련 과목을 아예 수강하지 않았거나 수강한 경제 관련 과목 수가 1과목 이하인 교사가 42%나 되었고, 4과목 이상을 수강한 교사는 26.1%에 불과하였다. 경제 과목을 적게 신청한 이유는 57.1%가 교과과정에 없기 때문이었으며, 교사들은 주로 경제학 개론, 한국 경제론 순으로 많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 높은 경제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양성 과정인 대학 과정에서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현직 교사에 대한 재훈련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직 교사에 대한 재훈련(연수)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앞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 관련 재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29.1%나 되었고, 3회 이상 받은 교사는 20.6%에 불과하였다<sup>7)</sup> 특히 최근의 교사 연수 과정을 살펴보면 경제 관련 연수의 기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재훈련의 기회를 갖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6) 김경년(1993), 선세서, p.26

7) 김관수(1994), 「중등 사회과 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 과정과 경제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국민경제연구소, pp.38-49.

물론 경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반드시 경제학 전공자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 지식을 지니고 있으면 경제를 가르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職前 교육 단계에서 이수한 경제 관련 과목 수는 대체로 미흡한 편이었고<sup>8)</sup>, 또한 현직 교사들에 대한 각종 경제 분야 연수도 충분한 것은 아니다.

교육의 질 또는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교사의 자질이라고 볼 때, 충실한 職前教育과 지속적인 現職研修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는 충실한 경제 교육의 기본이라고 하겠다.

## 2) 學習者

學習者의 학습 태도나 지능은 경제학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지능이 높을수록 경제학에서의 학습 성취도는 더 높아지며, 경제학 강좌를 이수하고자 하는 욕구가 경제학의 성취에 큰 영향을 준다.<sup>9)</sup> 즉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은 학업의 성취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의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고등학생들의 경제 분야에 대한 흥미 수준은 다른 나라의 학생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내용이 어렵고 딱딱하다는 것이다.<sup>10)</sup>

8) G. Lynch는 교사가 받았던 경제학 과정의 종합적인 영향은 적어도 4과목 이상의 경제학 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11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William B. Walstad 외(1994), 「국제적 시각의 경제 교육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conomic Education)」, 조명철 역(1997), 문창사, p.137

9) William Becker(1994), 「미국 고등학교 경제학에 대한 연구: 더욱 깊은 고려」, 「국제적 시각의 경제 교육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conomic Education)」, 조명철 역(1997), 문창사, pp.135-136

‘경제는 어렵다’는 인식이 대학 입시와 관련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경제 과목을 외면하고 있다.

<표 1>은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지난 3월 23일에 실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에서의 선택 과목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에 의하면, 경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인문계열 응시자 252,953명의 9.2%에 불과한 23,355명이다. 대학 입시와 상관없는 과목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 교육 풍토에 비추어 볼 때,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자연계열 및 예체능계열을 포함한 95%의 학생들에게 질 높은 경제 학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1>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선택 과목 현황**

계 열	응시인원	선택 과 목				
		사회·문화	정치	경제	세계사	세계지리
인문계열	252,953	139,570	65,623	23,355	16,296	8,109
자연계열	203,639	과학 과목 중에서 선택				
예체능계열	48,405	선택 과목 없음				
계	504,997					

자료 : 중앙교육진흥연구소(2000. 3. 23)

그리고 현행 경제 교육 관련 교과서는 경제 개념 및 원리의 소개에 치중한 나머지, 경제 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실생활에의 적용 능력을 배양하는데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sup>11)</sup> 이럴 경우 학생들은 경제 분

10) 진흥렬(1993), 진게서, p 20

11) 최선규(1997), “정보화와 경제 교육”, 「경제 교육」, (통권 제10호, 1997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연구소, pp 9-10.

야는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내용은 물론 기발한 예시와 설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 학습 성과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性差가 있는가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가 있었다. 性差에 관한 연구를 종합한 J. A. Heath 와 R. Highsmith 는 남녀의 性差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한다.<sup>12)</sup> 김경근에 의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0.4점(TEL 점수) 정도 높았고<sup>13)</sup>, 전홍렬에 의하면 남학생이 1.0점이 높았다<sup>14)</sup>.

학생들의 가정 환경과 부모의 직업도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정 환경을 고·중·저소득의 3계층으로 구분한 Walstad & Soper 에 의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TEL 점수도 높았으며, Highsmith에 의하면 전문직, 기업 경영자 혹은 관리자의 자녀들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sup>15)</sup>

### 3) 教育課程

학교 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교육 의도가 담긴 교육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교육과정 안에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인간상과 그러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 방법, 평가 등이 계획되어 있다.<sup>16)</sup>

1992년에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제6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는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

12) 선홍렬(1993), 진게서, p 21에서 재인용

13) 김경근(1993), 진게서, p 63

14) 전홍렬(1993), 전게서, p 114

15) 상게서, p 21에서 재인용

16) 교육부(1995),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pp 2-6

공통사회와 국사를 공통 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이외의 모든 과목은 각 시·도별 혹은 학교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의 확대 방침과 경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정치·경제는 정치와 경제로 분리되었다. 경제 교육은 공통 필수인 공통사회와 과정별 필수(시·도 선택)인 경제 과목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제를 독립 과목으로 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 과목이라는 한계로 인해 실업계 고등학생은 물론 많은 수의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공통사회 수준에서 경제 교육을 마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제6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

교 과 목		필 수 · 선 택	
사 회	공 통 사 회(8)	공통필수(필수)	
	국 사 (6)		
	정 치 (4)	과정별 필수(선택)	
	경 제 (4)		
	사회·문화 (4)		
	세 계 사 (6)		
	세 계 지 리(6)		
국 민 윤 리 (6)		공통필수(필수)	

註 ( )안의 숫자는 단위수임

자료 : 교육부(1995),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 (1) 공통사회 과목에서의 경제 교육

공통사회는 공통필수 과목으로서 일반사회 영역과 지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내용은 일반사회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제현상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경제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익히게 하고, 과학적 탐구 능력과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고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sup>17)</sup>

경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IV. 합리적 선택과 시장' 단원에서 (1) 경제적 자유와 책임, (2) 경제 성장과 경제 문제, (3)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 (4) 세계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 등을 다루고 있다.

## (2) 경제 과목에서의 경제 교육

경제 과목은, 학생들의 선택 과목의 범위를 넓힌다는 원칙과 경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하여 정치·경제 과목에서 독립시켰다.

경제 과목은 고도 산업 사회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적 사고력과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따라서 경제 현상의 인식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의사 능력을 기르게 하고,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경제 윤리와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sup>18)</sup>

경제 과목은 경제 단위 전체를 조망하고 합리적 의사 결정이라는 경제

---

17) 상세서, p 78

18) 상세서, pp 216-218

교육의 목표와 연결되는 (1) 경제 생활의 이해와 의사 결정 단원을 비롯하여, 각 주제를 다루는 (2) 생산과 소비, (3) 시장 경제의 특성과 경제활동, (4) 현대 국민 경제의 이해, (5) 현대 사회의 경제 문제, (6) 우리 경제의 발전과 당면 과제 등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경제 교육

1997년 12월에 고시되어 2002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 과정<sup>19)</sup>은 세계화와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변화의 환경 속에서 창의적으로 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경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0)</sup>

첫째, 1학년부터 10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 동안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중 사회 교과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둘째, 11, 12학년(고등학교 2, 3학년) 2년 동안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일반 선택 과목은 교양 증진 및 실생활과 연관된 과목이며 5개의 과목군으로 나뉘어진다. 교양 과목군에서는 2과목 이상을, 나머지 각 과목군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는 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에 속하며, 사회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인간 사회와 환경’이 있다.

심화 선택 과목은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사회의 심화 선택 과목으로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근·현

19) 초등학교는 2000년부터, 중학교는 2001년부터, 고등학교는 2002년부터 적용된다(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20) 교육부(1997), 「사회과 교육 과정」, pp.2-25

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이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의 경제 관련 내용은 10학년에서 사회, 11, 12학년에서의 심화 선택 과목인 경제에 주로 포함된다.

강통 필수과목인 사회의 경우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단원에서 국민소득과 경제 성장, 현대 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 세계 시장의 경제 경쟁과 협력 등을 다루고, 11, 12학년에서의 심화 선택 과목인 경제는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 해결, 시장과 경제활동,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국민 경제의 활동과 경제 변동,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3>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

구분 학년	국민공통 기본교과	일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
10(고1)	사회 (10) (국사 4)		
11(고2)		인간사회와 환경(4)	한국지리(8), 세계지리(8), 경제지리(6), 한국 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사 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12(고3)			

단 . ( )안의 숫자는 단위수임

자료 . 교육부(1997), 「사회과 교육과정」.

#### (4) 경제 교육의 시간 비중 변화

<표 4>는 교육과정 시기별 주요 과목의 시간 비중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사회, 도덕, 국사, 세계사, 지리를 모두 포함한 사회과의 비중이 전체 수업 시간의 약 17.2%로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표 4> 교육과정 시기별 고등학교 주요 과목의 시간 비중 추이

(단위 : %)

과목	1차 <sup>1)</sup>	2차		3차		4차		5차		6차 <sup>2)</sup>	
		인문	자연	인문	자연	인문	자연	인문	자연	인문	자연
국어	18.2	20.6	11.2	19.6	12.6	19.6	13.1	18.0	12.7		
수학	10.9	10.0	15.9	7.5	13.1	8.4	12.1	9.0	12.7		
영어	13.6	14.7	14.0	15.4	15.4	15.4	15.4	15.0	14.7		
(소계)	42.7	45.1	41.1	42.5	41.1	43.5	40.7	42.0	40.2		
국민윤리	2.7	2.0	1.9	2.8	2.8	2.8	2.8	3.0	2.9	3.2	3.2
국사	2.7	2.9	2.8	2.8	2.8	2.8	2.8	3.0	2.9	3.2	3.2
(소계)	5.4	4.9	4.7	5.6	5.6	5.6	5.6	6.0	5.8		
정치경제		2.0	-	2.3	2.3	-	-	3.0	2.9		
사회 <sup>3)</sup>	6.4	2.0	1.9	2.3	2.3 (택1)	4.2	2.3	2.0	-	4.3	4.3
세계사	2.7	2.9	2.8	2.3		1.9	0.9	2.0	1.9		
지리	2.7	5.9	2.8	4.6		4.2	2.3	4.0	1.9		
(소계)	11.8	12.7	10.3	11.7	4.6	10.3	5.6	11.0	6.9		
과학	7.3	10.8	18.7	8.4	16.8	9.3	16.8	9.0	19.6		
예능	6.4	17.6	16.8	12.1	12.1	11.7	11.6	11.0	10.8		
실업교련	20.9	8.8	8.4	14.0	14.0	14.0	14.0	15.0	14.7		
특별활동	5.5	-	-	5.6	5.6	5.6	5.6	6.0	5.9		

註 1) 제1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인문, 자연과정의 구분이 없음

2)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우 지방분권형 교육과정 특성 때문에 일률적으로 과목별 비중을 산정 하기 어려움

3) 사회 과목은 교육과정 시기에 따라 각각 일반사회(1, 2차시기), 사회·문화(3, 5차시기), 사회 I, II (4차시기), 공동사회(6차시기) 등을 통칭적으로 지칭함

자료: 김경근(1993), 「韓國中等學生의 經濟 認知力 實態」,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연구소

특히 경제 분야를 포함하고 있던 일반사회가 사회과 전체의 37.2%로서 이들 과목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일반사회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에 따라 경제 분야도 전체 수업 시간의 약 2.1% 정도를 점하게 되었다. 제1기는 경제가 비교적 중시되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전체 수업 시간에서 사회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문과정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7.6%로 1차시기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특히 지리 과목의 경우 지리 I, 지리 II로 나뉘면서 각각 6단위씩을 배정 받아, 전체적으로 총 수업 시간의 5.9%를 차지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신장을 거두게 되었다. 이에 비하면 정치·경제는 독립 과목으로 분리되는 되었으나, 그 비중이 국민윤리나 일반사회와 같은 4단위이면서 인문과정의 선택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자연계 학생들로서는 수강할 필요가 없는 과목이 되었다. 경제 분야에는 2 단위 가량의 수업 시간이 배정되었는 바, 이는 전체 수업 시간의 약 1% 정도로 지리 과목의 1/6 수준에 불과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 시기에서는 인문과정을 예로 들면 국민윤리 6 단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회과가 평균적으로 37단위 내외를 차지하여 전체 수업 시간의 약 17.4% 가량을 점유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정치·경제 (4-6 단위) 과목에서 경제는 절반 정도만 배정 받게 되므로 그 비중이 지리나 역사의 1/4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나마 인문과성 이외의 학생들은 경제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다. 다만 1979년부터 정치·경제가 필수과목이 되면서 자연계 및 실업계 학생들도 1% 정도의 비중으로나마 경제를 배울 수 있었다.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우 인문과정을 예로 들면 광의의 사회과 비중이 15.9%로 낮아진다. 관심의 대상인 경제 분야의 비중은 인문과정에서는 전체 수업 시간의 1% 정도, 자연과성에서는 약 0.6%에 불과하였다. 이는 당시 교련 과목이 차지하고 있던 시간 비중의 1/12에 해당한다.

제5차 교육과정시기에서는 인문과정의 경우 국민윤리 및 국사 각 6단위씩을 포함한 광의의 사회과가 34단위를 차지하여 전체 수업 시간의 16.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경제가 공통필수 과목으로서 모든 학생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되어 4차시기보다는 경제 분야의 비중이 커졌지만, 전체 수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선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경제가 독립 과목으로 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되지만, 과연 경제 교육이 강화되고 그 위상이 격상 되었는가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선 경제가 선택 과목이 됨으로써 학생들은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모든 학생이 공통사회(8단위)는 이수하게 될 것이나 이 과목에서 경제 분야에 할당된 비중은 총 14개 단위 가운데 단 1개 단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경제 교육과 관련하여 공통사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사회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인 경제가 있지만, 경제 과목을 꼭 이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필수 과목인 사회(국사를 제외하면 6 단위)에서 경제 분야에 할당된 비중은 총 10개 단위 가운데 1개 단위에 불과하여 실효성 있는 경제 교육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3. 學校 經濟 教育의 性格과 目標

#### 1) 學校 經濟 教育의 性格

경제생활에 대한 이해는 유능한 시민을 위한 필수 요건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경제 생활을 이해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원만한 상호의존 관계를 수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생산자로서 경제 사회에 참여하고, 주권자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경제 체제와 경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인적·공적인 선택을 할 때, 개인 생활과 국민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민주 정치의 발전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두 체제는 모두 개인들이 자신의 선택과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리에 근거한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발달은 자본주의 경제의 성공과 상호 연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 시민 교육이 정치나 법 교육만이 아니라, 경제 교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sup>21)</sup> 따라서 경제 교육은 지혜롭고 책임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 저축자,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민주 시민 육성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식 사고 능력과 기능 및 올바른 가치 태도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교의 경제 교육은 경제 생활이 주요한 관심사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과도 깊은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이 가지는 대부분의 특성을 경제 교육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면, 학교 경제 교육은 사회과 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학생들에게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하는 경제 현상과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이해력 즉 경제의 기본 개념 및 경제력 사고 방식을 습득하게 하는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

21) 김정호(1997), 선개서, pp.48-49.

22) 최병보(1994), “학교 경제 교육의 목적, 목표 및 교육과정”, 「경제교육연구」, (죽전 이태근 교수 성년 기념 논문집), p.123

## 2) 학교 경제 교육의 목표

개인의 창의와 자유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유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 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최병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23)</sup>

첫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합리적 소비, 합리적 생산 등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생활의 증진을 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한 사회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변의 경제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조화로운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학교 경제 교육은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시민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경제적인 삶의 향상을 꾀하게 한다.

셋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한 국가의 경제 현상을 이해시키고 국민의 경제적인 능력을 배양시켜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에 효율성을 부여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국 학교의 경제 교육은 우리 경제 사회의 기본적 가치 및 태도를 존중하고, 경제 현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경제 사회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경제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sup>24)</sup>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 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경제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25)</sup>

첫째, 경제 현상의 인식 방법과 자유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시켜,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23) 상계서, pp 123-124.

24) 교육부(1995), 전계서, p 217

25) 상계서, pp 217-218.



둘째, 국민 경제의 구성과 변동 과정, 국제 경제의 원리와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 과제 등을 이해시켜,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 능력 및 판단 능력을 가지게 한다.

셋째, 경제 현상의 인식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현안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게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사고력과 더불어, 각 경제 주체들이 경제 윤리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이처럼 교육부는 경제 교육의 목표를 지식 목표, 기능 목표, 가치·태도 목표로 나누어 고루 제시하고 있다. 즉 경제 교육은 단순히 경제학을 쉽게 가르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서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합리적 사고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 III. 研究 方法

#### 1. 調査 道具

이 研究를 위해 사용한 조사 도구는 미국의 John C. Soper 와 William B. Walstad에 의해 개발된 경제 인지력 검사 수정판(Test of Economic Literacy, 2d. ed.) A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번역한 韓國版 經濟 認知力 檢査 (Korean Version of Test of Economic Literacy)<sup>26)</sup>이다.

##### 1) 經濟 認知力 檢査 修訂版 (Test of Economic Literacy, 2d. ed.)

TEL에는 원래 A, B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15문항은 공통 문항으로 양쪽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두 유형의 검사 도구가 개발된 것은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위해서이다. 두 유형 모두 고등학생의 학습 수준에 적합하고 40분내지 50분 수업 시간에 마칠 수 있게 되었다. TEL에 대하여, 개발자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본 경제 개념의 이해력을 측정하는 매우 타당한 수단이라고 확언한다. 이들에 의하면 TEL은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소비자, 노동자, 유권자로서 적절히 활동하기 위해 꼭 가져야 할 기본 경제 개념의 이해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 검사는 교육과정 내용과 교수 방법에 대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

26) 이후부터는 Test of Economic Literacy, 2d. ed.은 TEL, Korean Version of Test of Economic Literacy는 KVTEL이라 칭한다

고 그 가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sup>27)</sup>

## 2) TEL(A형)의 내용과 인지 단계별 문항 분포

TEL에서 평가하려는 주된 내용은 고등학교 졸업생이면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 경제 개념들이다. 이를 내용 영역별로 분류 해보면 <표 5>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기초적 경제 개념, 미시 경제학적 개념, 거시 경제학적 개념, 그리고 국제 경제학적 개념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검사 문항들은 네 가지 내용 영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표 5> TEL (A형)의 내용과 인지 단계별 문항 분포

내용의 범주	인지단계					문항수
	지식	이해	적용	분석	평가	
기초적 경제 개념						12
최소성		3, 25				2
기회비용/상충관계			2, 4	5		3
생산성		6			8	2
경제체제	7					1
경제제도 및 유인	9	11				2
교환, 화폐 및 상호의존	12		1			2
미시 경제학적 개념						13
시장과 가격		10	13			2
수요와 공급	14		15, 16		17	4

27) 신홍렬(1993), 전서서, pp 71-72

경쟁과 시장의 구조			18, 19			2
소득분배	20	21				2
시장의 실패				22	23	2
정부의 역할		24				1
기시 경제학적 개념						13
국민총생산	26					1
총공급		27				1
총수요		28		29		2
실업				30		1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31, 32		2
금융정책		34	35		38	3
재정정책	36			33, 37		3
국제 경제학적 개념						8
비교우위/무역장벽		39	40	41		3
무역수지와 환율	42			43, 44		3
국제적 성장과 안정		45, 46				2
문항수	8	13	10	11	4	46

註 : 인지 단계별 숫자는 문항의 번호임

자료: 김정근(1993), 「韓國高等學生의 經濟 認知力 實態」, 한국개발연구원 국민  
경제연구소.

<표 5>에는 이 연구를 위한 평가 도구로 사용된 TEL(A형)의 문항들을 5단계 인지 분류 체계를 통해 정리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사용한 5단계 인지 분류 체계는 J. S. Bloom의 6단계 인지 분류 체계를 원용하되 원래의 모형에서 종합 단계를 제외시켜 구성한 것이다.<sup>28)</sup> <표 5>에 제시된 내용은 TEL(A형)이 특정 인지 단계의 측정에만 편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인지 단계에 대한 포괄적인 측정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8) 김정근(1993), 진게서, pp 47-48

### 3) 한국판 경제 인지력 검사 (Korean Version of Test of Economic Literacy)

이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 도구는 TEL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번역한 한국판 TEL, 즉 KVTEL이다. TEL의 일부 문항들은 불가피하게 일부 수정 번역되었다. 문항의 핵심적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정답을 고르는데 있어 외국 학생들과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내용만이 수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9)</sup>

(1) 우리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고유명사나 화폐 단위가 우리 고유의 것들로 대체되었다.

(2)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 및 경제 제도의 차이점 때문에 수정되었다. 예를 들면, 연방 정부 대신 우리 현실에 적절한 정부라는 용어로, 미국의 일반 매상세(general sales tax)를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었다.

### 4) TEL의 신뢰도와 타당도

#### (1) 신뢰도(reliability)

검사의 신뢰도란 한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sup>30)</sup>를 말한다. <표 6>은 TEL(A형)과 KVTEL의 신뢰도를 나타낸 것이다.

---

29) 상계서, pp 48-50

30) 이종승(1995), 「교육 연구법」, 배영사, p 216

**<표 6> TEL과 KVTEL의 신뢰도 비교**

	TEL(A형)	KVTEL
Cronbach alpha	0.87	0.82
S.E.M	3.06	3.10

자료 : 김정근(1994), 「국제적 시각의 경제 교육」, 문창사.

Cronbach alpha 신뢰도는 TEL(A형)이 0.87이고 KVTEL은 0.82이었으며, 표준 측정 오차(S.E.M)는 전자가 3.06이고 후자는 3.10이었다. KVTEL이 원래의 TEL보다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타당도(validity)

타당도란 그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屬性 또는 현상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를 말한다.<sup>31)</sup>

김정근<sup>32)</sup>과 전홍렬<sup>33)</sup>에 의하면 TEL은 다음과 같은 타당도를 갖는다.

첫째, 검사개발위원회는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검사 문항들을 놓고 선별 작업을 거쳤으며, 채택된 문항들에 대해서는 경제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토 작업을 거쳤다.

둘째, TEL 수정판과 초판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A형은 0.85, B형은 0.86의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한적이거나 共因 타당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TEL은 경제 인지력 검사에서 유의한 수준( $p < .001$ )의 構因 타당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31) 상계서, p 212

32) 김정근(1993), 전계서, pp 43-45

33) 전홍렬(1993), 선계서, pp 76-77

## 2. 標集

본 연구는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는 모두 13개 학교이며, 일반계 고등학교가 9개교(과학고 포함), 실업계고등학교는 4개교이다. 표본은 比例類層標集法(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에 의해 6개 고등학교에 18학급을 선정하였다.

- ① 남녀 학교의 비율을 균등히 하였다.
  - ② 일반계와 실업계는 학교수를 고려하여 2 : 1의 비율이 되도록 하였다.
  - ③ 한 학교에서 1·2·3학년 각 1학급을 선정하였다.
- 표집 학급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표집 학급수

학년 · 성별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계
1학년	남	2	1	3
	여	2	1	3
2학년	남	2	1	3
	여	2	1	3
3학년	남	2	1	3
	여	2	1	3
계		12	6	18

註 숫자는 학급수임

질문지의 실시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7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전량 회수되었다.

표집된 총 743명 중 질문지 기재가 부실한 17명을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

의 대상으로 취급된 표집수는 726명이었다.

**<표 8> 질문지 실시 및 회수**

학년 · 성별		배부수	회수된수	사용 불가능한 수	유효한 수
1학년	남	116	116	1	115
	여	115	115	1	114
2학년	남	127	127	5	122
	여	129	129	2	127
3학년	남	124	124	4	120
	여	132	132	4	128
계		743	743	17	726

<표 9>에는 최종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부난한 표집이 이루어졌으나 남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표집이 되었으며, 공통사회와 경제 두 과목을 모두 학습한 표본이 너무 적게 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표본의 특성**

특 성	모집단		최종 분석 표본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남녀별	12878				726
남	6938	53.9	357	49.2	
여	5940	46.1	369	50.8	
계열별	12878				726
일반계	8947	69.5	509	70.1	
실업계	3941	30.5	217	29.9	



특 성	모 집 단		표 본		
	사 례 수	비 율 (%)	사 례 수	비 율 (%)	전 체
학 년 별	12878				726
1	3887	30.2	229	31.5	
2	4285	33.3	249	34.3	
3	4706	36.5	248	34.2	
신 학 회 방 별	12878				726
진 학 회 망			694	95.6	
진 학 알 음			30	4.1	
무 응 답			2	0.3	
상 적 수 준 별	12878				726
10 등 이 내			211	29.1	
11 ~ 20 등			204	28.1	
21 ~ 30 등			142	19.6	
31 등 ~			79	10.9	
무 응 답			90	12.3	
보 호 자 직 업 별	12878				726
농, 임, 어, 목 축			131	18.0	
제 조, 인 쇄, 건 설, 토 목			113	15.6	
판 매, 서 비 스			184	25.3	
공 무 원, 금 융 업			138	19.0	
회 사 원			73	10.1	
기 타			69	9.5	
무 응 답			18	2.5	
보 호 자 학 력 별	12878				726
초 등 졸			90	12.4	
중 졸			150	20.7	
고 졸			380	52.3	
대 학 이 상			86	11.8	
무 응 답			20	2.8	

특 성	모 집 단		표 본		
	사 례 수	비 율 (%)	사 례 수	비 율 (%)	전 체
월평균 소득별	12878				726
100만원 이하			107	14.7	
101-150만원			193	26.6	
151-200만원			144	19.8	
201-250만원			88	12.1	
251-300만원			57	7.9	
301만원 이상			51	7.0	
부응답			86	11.8	
경제과목학습 여부	12878				726
공통사회 1과목 학습			377	51.9	
공통사회, 경제 학습			40	5.5	
모두 안배움			309	42.6	

그리고 경제 과목 학습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서는 공통사회와 경제 두 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들을 분류하였다. 조사 시기가 학년초이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비학습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3. 資料 處理

이 연구는 학교 경제 교육에 관한 문헌의 고찰과 함께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집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經濟 認知力 조사 도구를 통해 학생들의 經濟 認知力 수준을 측정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한 경제 인지력 검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6개 고등학교에서 2000년 4월 3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시행되었다. 한 학교에서 각 학년별로

한 학급씩을 추출하여 총 18개 학급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검사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사회과 교사 또는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였다.

시험 시간은 총 50분으로 하되 처음 10분은 검사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설명하고 자료 분석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40분은 검사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경제 과목 학습 여부는 시험지를 회수할 때, 연구자가 교사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부호화 작업 및 오류 자료 검토 작업을 거친 후 전산 처리하였다.

표본 특성별(성별, 계열별, 학년별, 진학 희망별, 성적 수준별, 보호자 직업별, 보호자 학력별, 보호자 소득별, 경제 과목 학습 여부)로 응답의 차에 대한 유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과 F 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을 중심으로 반응 결과를 제시하고 집단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변인에 대해서는 전체 반응 결과만 제시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SPSS/PC+(Ver.7.5)를 사용하였다.

## IV. 研究 結果와 論議

### 1. 經濟 認知力 水準

한국판 경제 인지력 검사(KVTEL)를 통해 나타난 제주시 고등학생들의 경제 인지력 수준은 총 46문항 중 평균 24.30점 (표준편차 7.12)이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2.83점이다. 최고 점수는 43점, 최하 점수는 7점이었고 최빈 점수는 25~26점이다.

학생들을 경제 과목 학습 정도별로 보다 세분하여 성적을 살펴보면, 공통사회와 경제 두 과목을 모두 배운 학생들은 31.05점, 공통사회 한 과목만을 배운 학생들은 25.63점, 공통사회와 경제 두 과목 모두 배우지 않은 학생들의 점수는 점 21.82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각각 67.49점, 55.71점, 47.43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과목 이수 여부가 경제 인지력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공통사회와 경제 두 과목을 모두 학습한 학생들은 공통사회만을 학습한 학생들보다 11.78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공통사회와 경제 두 과목 모두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무려 20.01점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경제를 선택 과목으로 정한 제6차, 제7차 교육과정에서 경제 과목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이 된다고 하겠다.

제주시 학생들의 경제 인지력 수준은 <표 10>과 같다.

**<표 10> 제주도 학생들의 경제 인지력 수준**

구 분	
대상 학생수	726
총문항	46
전제 평균 점수	24.30 (100점 환산점수 : 52.83)
표준편차	7.12
최고 점수	43 (100점 환산점수 : 93.47)
최하 점수	7
최빈 점수	25~26
공동사회, 경제 모두 학습한 집단	31.05 (100점 환산점수 : 67.49)
공동사회만 학습한 집단	25.63 (100점 환산점수 : 55.71)
공동사회, 경제 모두 안 배운 집단	21.82 (100점 환산점수 : 47.43)

점수별 빈도수는 <표 11>과 같다.

**<표 11> 점수별 빈도수 및 백분율**

점수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점수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7	2	3	3	26	45	6.2	61.2
8	1	.1	.4	27	30	4.1	65.3
9	4	.6	1.0	28	26	3.6	68.9
10	5	.7	1.7	29	39	5.4	74.2
11	9	1.2	2.9	30	32	4.4	78.7
12	10	1.4	4.3	31	37	5.1	83.7
13	18	2.5	6.7	32	30	4.1	87.9
14	21	2.9	9.6	33	18	2.5	90.4
15	27	3.7	13.4	34	15	2.1	92.4
16	21	2.9	16.3	35	18	2.5	94.9
17	32	4.4	20.7	36	9	1.2	96.1
18	24	3.3	24.0	37	4	.6	96.7
19	31	4.3	28.2	38	10	1.4	98.1
20	24	3.3	31.5	39	7	1.0	99.0
21	27	3.7	35.3	40	3	.4	99.4
22	34	4.7	39.9	41	2	.3	99.7
23	24	3.3	43.3	42	1	.1	99.9
24	40	5.5	48.8	43	1	.1	100
25	45	6.2	55.0	합계	726	100	

## 2. 經濟 概念別 經濟 認知力 水準

학생들의 전반적인 경제 인지력 수준과는 별도로 특정 경제 개념 또는 영역에 따라 이해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학생들이 어떤 경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고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학습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1) 問項別 經濟 認知力 水準

<표 12>는 각 문항별 정답률 및 반응 분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12> 문항별 정답률 및 반응 분포

( 단위 : % )

<div> <div>답항</div> <div>문항</div> </div>	①	②	③	④	무응답	정답
1	73.1	2.9	11.0	12.8	0.1	①
2	1.5	5.5	10.2	82.2	0.6	④
3	29.2	9.4	57.0	4.3	0.1	③
4	37.7	36.2	17.6	7.3	1.1	②
5	2.9	27.8	33.3	36.0	0.0	④
6	14.0	10.9	55.9	18.0	1.1	③
7	4.1	12.5	25.9	57.4	0.0	④
8	37.2	9.8	46.3	6.1	0.7	③
9	16.1	5.5	8.7	69.6	0.1	④
10	51.5	7.4	17.5	22.6	1.0	①
11	62.8	6.7	20.2	9.9	0.3	①
12	83.9	4.0	7.4	4.7	0.0	①
13	18.7	60.9	13.6	6.5	0.3	②

문항 \ 답항	①	②	③	④	무응답	정답
14	10.5	54.8	13.8	20.4	0.6	②
15	13.9	64.9	12.1	9.0	0.1	②
16	5.2	14.9	8.5	71.3	0.0	④
17	11.2	7.0	16.3	64.5	1.1	④
18	47.4	41.3	6.7	4.4	0.1	①
19	73.3	10.6	9.1	6.6	0.4	①
20	48.1	8.5	24.4	18.7	0.3	①
21	14.9	6.2	64.9	13.8	0.3	③
22	7.0	32.8	30.0	29.6	0.6	②
23	19.3	17.9	51.9	10.2	0.7	③
24	8.5	36.2	43.8	10.7	0.7	③
25	35.5	16.1	39.1	9.0	0.3	③
26	7.7	4.8	5.4	81.7	0.4	④
27	50.0	28.2	10.6	10.2	1.0	①
28	23.0	10.7	57.9	8.1	0.3	③
29	44.1	31.5	14.5	8.0	1.9	①
30	7.9	8.4	8.4	75.2	0.1	④
31	22.7	21.6	46.1	8.8	0.7	③
32	23.8	23.0	31.5	21.2	0.4	②
33	22.6	9.1	40.9	27.4	0.0	③
34	9.5	21.8	19.4	49.0	0.3	④
35	26.4	24.9	27.1	20.1	1.4	③
36	50.1	24.0	9.5	16.1	0.3	①
37	26.0	18.9	11.4	42.8	0.8	④
38	23.3	22.9	29.5	23.8	0.6	②
39	14.0	50.6	12.3	22.9	0.3	②
40	13.4	32.6	40.1	12.8	1.1	③
41	19.4	19.4	47.2	13.5	0.4	③
42	9.6	64.6	16.4	8.1	1.2	②
43	8.7	43.1	18.6	28.8	0.8	②
44	22.2	47.0	16.1	13.8	1.0	②
45	13.1	67.1	7.9	11.4	0.6	②
46	30.3	8.3	42.8	17.6	1.0	①

<표 12>를 보면, 6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인 것은 46 문항 중 15문항, 50% 미만의 낮은 정답률을 나타낸 것은 20 문항이었다.

기획비용의 개념(2번), 화폐의 기능(12번), GNP의 개념(26번) 등은 80% 이상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무역의 이익(1번), 가격 상승의 요인(16번), 경쟁 시장의 효과(19번), 실업률(30번) 등의 문항도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완전고용(4번), 기획비용(5번), 공공재의 생산(22번), 생산 요소(25번),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대책(32, 38번), 금융정책(38번), 경제 성장과 투자(46번) 등의 문항은 40% 이하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그리고 누진세(24번), 총수요와 경제 성장(29번), 재정 정책(33, 37번), 비교 우위와 기획비용(40번), 관세(43번) 등의 문항도 비교적 저조한 정답률을 보여주었다.

기획비용의 개념을 단순히 적용하는 문항(2번)은 82.2%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항(5번)의 경우는 정답률이 36.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 12>는 학생들이 각 문항의 답肢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문항 반응 분포는 대부분의 학생이 정답에 반응하고 誤答肢에도 비교적 고르게 반응이 분포되는 경우이다.<sup>34)</sup>

대부분의 경우 정답에 해당하는 답肢에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몇몇 문항의 경우 誤答肢에 응답한 비율이 正答肢에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4, 32, 38, 46 번 문항이다. 이들 문항과 앞에서 지적한 정답률이 40%에 못 미친 문항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

34) 황정규(1998), 전제서, p 493



4 한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완전 고용되어 있을 때, 어떤 한 상품을 보다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①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게 생산을 맡겨야 한다.
- ② 다른 상품의 생산을 줄여야 한다
- ③ 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져야 한다.
- ④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한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완전 고용되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어떤 제품을 보다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려던 자원을 전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②번이다. 그런데 ②번에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36.2%에 불과하고, 37.7%의 학생들이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게 생산을 맡겨야 한다’는 ①번에 응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완전고용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정답을 고르는데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다.

5. 홍길동군은 내년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즉시 일년에 1000만원을 벌 수 있는 식당에 취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학에 진학한다면 일년에 500만 원을 수업료를 비롯한 학비로 지출해야 한다. 금전적으로 따졌을 때, 홍길동군이 내년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 ① 없다                      ② 500만원                      ③ 1000만원                      ④ 1500만원

기회비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문항이다. ‘어떤 경제적 선택의

결과로 포기되는 여러 활동의 가치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그 경제적 선택의 기회비용<sup>35)</sup>이라고 한다면, 진학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1000만원과 학비로 지출해야 하는 500만원을 합친 1500만원 즉 ④번이 정답이다. 그런데 ④번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6.0%에 불과하고, 33.3%는 1000만원, 27.8%는 500만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회비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2. 남해의 조그만 항구 도시인 파포 앞 바다에서는 인근 해역에 있는 암초 때문에 6년 동안에 네 번이나 부근을 지나가던 배가 난파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파포로 입항하려는 배를 보호할 등대가 없는 현실을 무척 걱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간 기업들이 나서서 등대를 가설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 ① 선주들은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 ② 등대를 세우면 그것을 가설하고 유지하는데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배들까지도 등대의 혜택을 입기 때문에
- ③ 민간 기업이 등대를 가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는 경우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 ④ 등대를 가설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市場의 失敗와 公共財 생산에 관한 문제이다. 등대는 대표적인 공공재이며, 공공재는 소비에서의 非競合性和 排除不可能性の 특성을 갖기 때문에 代價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닌다.<sup>36)</sup> 따라서 ②번이 정답이 된다. 그런데 ②번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2.8%에

35) 교육부(1998),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8.

36) 이준구·이창용(1997), 「경제학원론I」, 법문사, pp.414-415

불과하고, ③번에 30.0% ④번에 29.6%의 학생들이 응답하고 있다. 공공재의 특성과 시장 실패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5. 생산에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천연 자원, 인적 자원, 그리고 물질 자원이라고 한다면, 다음 어떤 것이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가?

- |                   |                     |
|-------------------|---------------------|
| ① 지대, 근로자, 화폐     | ② 석유, 택시 운전자, 유가 증권 |
| ③ 철광석, 교사, 화물 자동차 | ④ 농부, 투자자, 제조업자     |

이 문항 역시 제시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문항이다. 정답인 ③번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9.1%에 불과하고, 오답인 ①번에 35.5%, ②번에 16.1%의 학생들이 응답하고 있다. 이는 답지에 제시되어 있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초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32. 다음 가운데 어떤 집단이 예상치 못했던 물가 상승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가?

- |        |          |
|--------|----------|
| ① 제조업자 | ② 채권 소유자 |
| ③ 채무자  | ④ 농부     |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은 불리하고, 가치가 오르는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은 유리하다. 그리고 봉급생활자와 채권자가 불리한 반면에 채무자가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③번이다. 그런데 ②번에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23.0%에 불과하고, 31.5%의 학생들이 '채무자'라는 ③번에 응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

타난 이유는 채권자, 채무자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거나 물가 상승의 영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35. 다음 금융정책 가운데 어떤 것이 총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되는가?

- ① 일반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높인다.
- ② 주식 매입에 있어서 매수 증거금 한도액을 올린다.
- ③ 공개 시장에서 정부가 발행한 공채를 사들인다.
- ④ 재할인율을 올린다.

금융정책에 관한 문제이다. 통화(량)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

지급 준비율의 인상이나 재할인율 인상은 통화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공개 시장에서 정부가 발행한 공채를 사들이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그런데 정답률은 27.1%에 불과하고, 오답인 ①번에 26.4%, ②번에 24.9%, ④번에 20.1%의 비슷한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금융정책의 일반적 정책 수단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38.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높다고 하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써야 하겠는가?

- ①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한편 공개 시장에서 정부의 공채를 판다.
- ②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한편 공개 시장에서 정부의 공채를 판다.
- ③ 세금을 줄이는 한편 공개 시장에서 정부의 공채를 사들인다.
- ④ 세금을 늘리는 한편 공개 시장에서 정부의 공채를 사들인다.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재정 정책은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정책을 써야 한다. 금융정책은 공채를 팔거나, 지급 준비율을 높이거나, 제한인율을 높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②번이다. 그런데 정답인 ②번에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22.9%에 불과하고, 29.5%의 학생들이 ‘세금을 줄이는 한편 공개 시장에서 정부의 공채를 사들인다.’라는 ③번에 응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재정 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46. 개발 도상국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① 투자를 늘린다.
- ② 소비를 늘린다.
- ③ 시장 제도를 활용한다.
- ④ 중앙집권적 경제 계획을 활용한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생산이 양적으로 증가해야 하고, 생산의 양적 증가는 투자가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①번이다. 그런데 정답인 ①번에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30.3%에 불과하고, 42.8%의 학생들이 ‘시장 제도를 활용한다.’라는 ③번에 응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질문지에 제시되어 있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 2) 經濟 概念 領域別 經濟 認知力 水準

<표 13>에는 제주시 고등학생들의 경제 인지력 수준이 경제 개념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다.

<표 13> 경제 개념 영역별 정답률

( 단위 : % )

문항내용	문항수	전체	경제관련 과목 학습별		
			공동사회, 경제 학습	공동사회 학습	모두 학습 안함
전 체	46	52.83	67.49	55.71	47.43
기초적 경제 개념	12	58.29	70.00	61.12	53.39
회소성	2				
기회비용/상충관계	3				
생산성	2				
경제체제	1				
경제제도 및 유인	2				
교환, 화폐 및 상호의존	2	56.15	72.50	59.67	49.78
미시 경제학적 개념	13				
시장과 가격	2				
수요와 공급	4				
경쟁과 시장의 구조	2				
소득분배	2				
시장의 실패	2				
정부의 역할	1	46.99	61.53	48.64	43.06
거시 경제학적 개념	13				
국민총생산	1				
총공급	1				
총수요	2				
실업	1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2				
금융정책	3				
재정정책	3				
국제 경제학적 개념	8	48.74	65.31	52.65	41.78
비교우위/무역장벽	3				
무역수지와 환율	3				
국제적 성장과 안정	2				

경제 개념 영역별로는 기초적 경제 개념들과 미시 경제학적 개념들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거시 경제학적 개념들과 국제 경제학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제 관련 과목을 배우지 않은 집단은 기초적 개념을 제외하고는 정답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공통사회와 경제 두 과목을 모두 학습한 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60%를 상회하는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학습을 통해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향상되는 정도도 각 내용 영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적 경제 개념의 경우, 경제를 전혀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의 정답률을 기점으로 했을 때 공통사회와 경제 과목을 모두 학습한 학생들이 16.61점 (100점 만점 기준) 정도 향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시 경제학적 개념은 22.72점, 거시 경제학적 개념은 18.47점, 국제 경제학적 개념은 무려 23.53점이나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는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개별 경제 개념별로 경제 인지력 수준을 살펴보면, 기초적 경제 개념 중에서는 경제 제도 및 유인, 교환, 화폐 및 상호 의존 등의 개념에 대하여는 비교적 높은 이해도를 보인 반면에 희소성, 기회비용, 생산성 등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미시 경제학적 개념 중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반면에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는 낮게 나타났다.

거시 경제학적 개념 중에서는 국민 총생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반면에 총공급과 총수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등의 개념에 대하여는 낮은 이해도를 보였다.

국제 경제학적 개념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비교 우위와 환율 등의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게 나타났다.

### 3) 認知 段階別 經濟 認知力 水準

앞의 <표 5>에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TEL의 46문항을 5단계 인지분류 체계(Bloom의 인지분류체계를 원용)를 통해 정리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분류에 따라 인지 단계별로 경제 인지력 수준을 나타낸 것이 <표 14>이다.

<표 14> 인지 단계별 경제 인지력 수준

認知段階	정답률 (%)
知識 ( 8문항)	62.4
理解 (13문항)	52.3
適用 (10문항)	57.7
分析 (11문항)	43.5
評價 ( 4문항)	46.4
선제 (46문항)	52.8

認知段階別 經濟 認知力 수준은 지식, 적용, 이해, 평가, 분석의 순으로 나타났다.

低級의 認知的 目標라고 할 수 있는 ‘知識’은 62.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으나,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단순한 暗記나 과거의 행동 방법을 넘어서서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신작용인 高級思考力の 認知的 目標<sup>37)</sup>라 할 수 있는 ‘分析’과 ‘評價’는 각각 43.5%, 46.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37) 차경수(1998), 「현대의 사회과 교육」, 학문사, pp 194-215



이것은 대학 입학 시험과 관련된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민주 시민의 중요한 자질인 고급 사고력을 함양하는데 소홀히 한 결과<sup>38)</sup>라고 생각한다.

### 3. 標本 特性別 經濟 認知力 水準

#### 1) 性別

경제 인지력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 보았다. <표 15>에 의하면 경제 인지력(원점수)이 남학생들은 평균 23.38점인데 비하여 여학생들은 25.19점이다. 여학생들이 1.8점 정도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중(집단간 평균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경제 인지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p < .01$  유의도 수준에서 의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성별 경제 인지력 비교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남	357	23.38	7.98	-3.458**
여	369	25.19	6.07	
전체	726	24.30	7.12	

\*\*  $p < .01$

---

38) 상계서, p 196

성별에 따른 차이를 세분하여 보면, 일반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0점 정도 높았고, 실업계의 경우도 여학생이 4.3점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전홍렬(1993)에 의하면 남학생이 1.0점 정도 높았고, 김경근(1993)에 의하면 0.4점 정도 여학생이 높았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 系列別

경제 인지력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았다. <표 16>에 의하면 경제 인지력(원점수)이 일반계는 평균 26.26점인데 비하여 실업계는 19.70점이다. 일반계 학생들이 6.6점 정도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계열에 따른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일반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경제 인지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p < .001$  유의도 수준에서 의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계열별 경제 인지력 비교

계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일반계	509	26.26	6.84	12.506***
실업계	217	19.70	5.49	
전 체	726	24.30	7.12	

\*\*\*  $p < .001$

이러한 차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주로 취업에 대비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계의 경우 공통사회만을 필수과목으로 학습하고 있으나, 일반계는 선택인 경제 과목을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 학습하더라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습의 強度에서 훨씬 우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높은 득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 3) 진학 희망 여부별

대학에 진학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 인지력도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95.6%라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했고, 진학할 의사가 없는 학생들은 4.1%에 불과하였다.

<표 17>에 의하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제 인지력(원점수)은 평균 24.40점인데 비하여 진학할 의사가 없는 학생들은 22.30점이다.

진학 희망 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해보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진학 희망 여부별 경제 인지력 비교

진학희망여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진학희망	694	24.40	7.14	1.585
진학인원	30	22.30	6.61	
무응답	2	19.00		
선 체	726	24.30	7.12	

#### 4) 학년별

경제 인지력 수준을 학년별로 고찰해 보면,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제 인지력도 높게 나타났다.

<표 18>에 의하면 1학년의 경제 인지력(원점수)은 21.56점, 2학년은 24.90점, 3학년은 26.23점이다. 이런 차이가 학년별 집단간에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간 분산 분석 결과 F값이 28.957로 나타났으며,  $p < .001$  유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18> 학년별 경제 인지력 비교

학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변량원	세곱합 (SS)	자유도 ( df )	평균의 세곱합 (MS)	F
1	229	21.56	6.19	집단간	2733.272	2	1366.636	28.957***
2	249	24.90	6.91	집단내	34122.454	723	47.196	
3	248	26.23	7.39					
전 제	726	24.30	7.12	합 계	36855.726			

\*\*\*  $p < .001$

이와 같은 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제를 학습한 학생들의 비율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지 발달의 수준에 따라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1학년의 경우, 검사 시행 시기가 학년초인 관계로 공통 사회의 경제 관련 단원을 전혀 학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격차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 5) 학교 성적 수준별

예상한 대로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경제 인지력도 높게 나타났다.

<표 19>에 의하면 학급 석차가 10등 이내 학생의 경제 인지력 (원점수)은 26.88점, 11~20등 학생은 23.56점, 21~30등 학생은 23.39점, 31등 이하인 경우는 20.39점이다. 이러한 차이가 성적 수준별 집단간에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값이 28.957로 나타났으며,  $p < .001$  유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19> 학교 성적별 경제 인지력 비교

학교 성적 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변량원	제곱합 (SS)	자유도 ( df )	평균의 제곱합 (MS)	F
10등이내	211	26.88	7.14	집단간	3003.414	4	600.683	12.776***
11~20등	204	23.56	6.65	집단내	33852.312	721	47.017	
21~30등	142	23.39	7.12					
31등~	79	20.39	7.07					
무응답	90	24.80	5.97					
전 체	726	24.30	7.12	합계	36855.726			

\*\*\*  $p < .001$

## 6) 보호자 직업별

보호자의 직업 (아버지 기준)은 ① 농업·어업·임업·목축업 ② 제조업·인쇄업·건설업·토목업 ③ 판매·서비스업 (도·소매, 숙박, 식당, 이·

미용업, 외판 등) ④ 공무원·교수·교사·금융기관 및 은행원 ⑤ 회사원  
⑥ 기타 등 6개군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sup>39)</sup>

보호자(아버지) 직업별로 비교해 보면, 무응답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회사원의 자녀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어·임·축산업, 공무원 및 금융업, 판매·서비스업, 제조·건설·토목업,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직업별 집단간에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4.135로 나타났으며,  $p < .001$  유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20> 보호자 직업별 경제 인지력 비교

보호자 직업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변량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의 제곱합 (MS)	F
농,어,임,축 등	131	25.14	6.87	집단간	1229.367	6	204.894	4.145***
제조,건설,토목	113	22.68	7.27	집단내	35626.359	719	49.550	
판매,서비스 등	184	24.16	6.46					
공무원, 금융 등	138	24.99	8.11					
회사원 등	73	25.52	7.20					
기타	69	22.01	6.61					
무응답	18	28.38	3.05					
전체	726	24.30	7.12	합계	36855.726			

\*\*\*  $p < .001$

39) 통계청의 산업별·직업별 취업자 분류(구직업분류) 기준을 준용하였다. 제주의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 7) 보호자(어머니) 학력별

대체로 보호자(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인지력도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가정의 학습 환경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 특성에 포함시켰다. 보호자(어머니) 학력별 집단간에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1.068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1> 보호자 학력별 경제 인지력 비교

보호자 학 력	사 례수	평균	표준 편차	변량원	제곱합 (SS)	자유도 ( df )	평균의 제곱합 (MS)	F
초등졸	90	23.93	6.42	집단간 집단내	217.037	4	54.259	1.068
중졸	150	23.76	7.04		36638.689	721	50.816	
고졸	380	24.26	7.19					
대학이상	86	25.60	7.74					
무응답	20	25.15	6.56					
진 체	726	24.30	7.12	합 계	36855.726			

## 8) 보호자 소득 수준별

보호자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의 높을수록 경제 인지력도 높게 나타났으나,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자녀들의 경우는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보호자 소득 수준별 집단간에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3.750으로 나타났으며,  $p < .01$  유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전홍렬(1993)의 연구에서도 중류 집단이 가장 높고, 상류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집단(또는 상류 집단)의 자녀들의 경제 인지력 수준이 낮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22> 보호자 소득 수준별 경제 인지력 비교

보호자 소 득	사 례 수	평균	표준 편차	변량원	제곱합 (SS)	자유도 ( df )	평균의 제곱합 (MS)	F
100만원 이하	107	21.72	6.74	집단간	1118.476	6	186.413	3.750**
101-150만원	193	24.33	6.77	집단내	35737.250	719	49.704	
151-200만원	144	24.56	6.94					
201-250만원	88	24.82	8.10					
251-300만원	57	25.92	7.13					
300만원 부응답	51	23.56	7.32					
전 체	726	24.30	7.12	합 계	36855.726			

\*\*  $p < .01$

## 9) 경제 관련 과목 학습별

경제 인지력 수준을 경제 관련 과목을 학습한 정도별로 고찰해 보면, 예상대로 학습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 인지력도 높게 나타났다.

<표 23>에 의하면 공통사회와 경제 두 과목을 모두 배운 학생들의 경제 인지력(원점수)은 31.05점, 공통사회 한 과목만을 배운 학생들은 25.63점, 공통사회와 경제 두 과목 모두 배우지 않은 학생들의 점수는 점 21.82점을 얻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경제 관련 과목 학습별 집단간에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간 분산 분석 결과 F 값이 32.528 로 나타났으며,  $p < .001$  유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23> 경제 관련 과목 학습별 경제 인지력 비교

관련과목 학습정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변량원	제곱합 (SS)	자유도 ( df )	평균의 제곱합 (MS)	F
공통사회, 경제 학습	40	31.05	6.43	집단간 집단내	4387.001	3	1462.334	32.518***
공통사회 학습	377	25.63	7.40		32468.725	722	44.971	
모두 학습안함	309	21.82	5.77					
전 체	726	24.30	7.12	합 계	36855.726			

\*\*\*  $p < .001$

위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보면 각각 67.49점, 55.71점, 47.43점을 기록하고 있다. 그 차이를 보면, 공통사회와 경제 두 과목을 모두 학습한 학생들은 공통사회만을 학습한 학생들보다 11.78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공통사회와 경제 두 과목 모두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무려 20.06점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과목의 학습 여부가 경제 인지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 과목을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 4. 經濟 認知力 水準 比較 分析

여기에서는 제주시 지역 고등학생들과 다른 지역 학생들의 경제 인지력 수준을 개괄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24>는 제주시 학생들의 경제 인지력 수준과 선행 연구인 김경근(1993, 전국)의 연구를 비교한 것이다.<sup>40)</sup>

<표 24> 평균 점수 비교

	제주시 (2000)	김경근 (전국,1993)
표본의 크기	726	4,334
평균점수(46점만점)	24.30	23.77
표준편차	7.12	7.25
100점환산평균점수	52.83	51.67
학습집단평균점수 (100점환산점수)	31.05 (67.5)	26.54 (57.7)
부분학습집단평균점수 (100점환산점수)	25.63 (55.7)	22.66 (49.3)
비학습집단평균점수 (100점환산점수)	21.82 (47.4)	22.25 (48.4)

40) 제5차 교육과정시기에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서는 필수인 정치·경제 과목의 경제 분야를 완전히 마친 학생들은 학습 집단,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부분 학습 집단, 경제 분야를 전혀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비학습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6차 교육과정시기이므로 공통사회와 경제를 모두 학습한 경우는 학습 집단, 공통사회만 학습한 경우는 부분 학습 집단, 두 과목 모두 배우지 않은 집단은 비학습 집단으로 분류·비교하였다. 따라서 연구 시점의 차이와 교육과정상의 차이로 인한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전체 평균을 비교해 보면, 김경근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제 학습 정도별로 세분하여 김경근(전국)과 비교하여 보면, 비학습 집단은 제주시 학생들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은 반면에 경제를 배운 학습 집단과 부분 학습 집단은 제주시 학생들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즉 비학습 집단은 제주시 지역 학생들이 100점 환산 점수로 약 1점 정도 떨어지지만, 부분 학습 집단은 7.4점, 경제 학습 집단은 9.8점이나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조사 시점과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것은 제주시 학생들의 경제 인지력 향상 정도가 다른 지역의 학생보다 크다는 것을 발해 주고 있다

이처럼 경제 인지력 향상 정도가 선행 연구의 경우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제6차 교육과정에서 경제(4단위 이수)를 독립 과목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V. 結 論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등학교 경제 교육의 내실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내 6개 고등학교 남·여 726명을 대상으로 하여 46개 문항으로 구성된 경제 인지력 검사 수정판(TEL)을 조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인지력 검사에서 제주시 고등학생들이 얻은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2.83점(원점수는 24.30점)이다. 공통사회와 경제 두 과목을 모두 배운 학생들은 67.49점, 공통사회 한 과목만을 배운 학생들은 55.71점, 공통사회와 경제 두 과목 모두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47.43점을 얻었다. 공통사회와 경제 두 과목을 모두 학습한 학생들이 공통사회만을 학습한 학생들이나 공통사회와 경제 두 과목 모두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경제 과목의 학습 여부가 학생들의 경제 인지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경제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둘째, 경제 개념 영역별로 고찰해보면, 기초적 경제 개념들과 미시 경제학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 수준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거시 경제학적 개념들과 국제 경제학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지 단계별로는 低級의 認知的 目標라고 할 수 있는 ‘知識’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高級思考力의 認知的 目標라 할 수 있는 ‘分析’과 ‘評價’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표본 특성별로 경제 인지력 수준을 고찰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앞섰다. 계열별로는 일반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월등히 나은 성적을 보였다. 진학 희망별로는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약간 앞섰으나 유의미한 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제 인지력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학교 성적 수준별로는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경제 인지력도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아버지) 직업별로는 무응답의 학생들을 제외하면 회사원의 자녀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어·임·축산업, 공무원 및 금융업, 판매·서비스업, 제조·건설·토목업,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대체로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인지력도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 인지력도 높게 나타났으나,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자녀들의 경우는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넷째, 제주시 고등학생들의 경제 인지력 수준을 다른 지역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전체 평균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제 학습 정도별로 세분하여 비교해 보면, 경제를 배우지 않은 비학습 집단은 제주시 고등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얻었으나 경제를 배운 집단은 제주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의 경제 인지력 수준은 그다지 높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제 관련 과목에 충분한 시간 배정이 이루어진다면 경제 인지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사 결과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52.83%의 정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공통사회와 경제 과목을 모두 학습한 집단의 경우는 평균 67.49%의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경제 관련 과목을 학습하지 않은 집단의 평

균 정답률 47.43%와 비교하면 대단히 큰 차이라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경제 교육을 내실화하고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첫째, 사회과 교육과정 중 경제 분야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경제 교육은 공통필수인 공통사회 과목과 시·도 선택인 경제 과목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택인 경제 과목은 일부 학교에서만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통사회 수준에서 경제 교육을 마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공통사회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14개 단원 중 단 1개 단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분야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필수 과목인 공통사회에서 경제 분야의 비중을 높여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교과 내용이 난해하다는 이유로,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경제 과목을 외면하고 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경제 과목이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수강하려는 과목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교재가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경제 교과서가 어렵고 양이 많으며 대학의 경제학 개론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유의하면서, 고등학생 수준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를 정선하여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도록 교과서가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의 학습자료가 빈곤한 우리의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경제 교육을 위해서는 이 과제의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유관 기관에서 체계적인 경제 교육 자료

를 제작하고 수시로 학교에 보급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학습지도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고급 사고력 함양을 위해서는 교실 현장의 수업 방법의 개선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가 최대한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구안하여 적용하는 주체가 교사라고 한다면, 교육의 문제는 교사의 자질의 문제이며, 학습지도 방법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경제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양성 기관인 사범대학에서부터 학교 경제 교육의 성격에 맞도록 경제학 이론은 물론 학습지도 방법론을 포괄하는 경제 교육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 관련 사례와 탐구 중심의 경제 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경제 교육은 대다수가 경제학 전공이 아닌 일반사회 전공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직 연수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는 충실한 경제 교육의 기본이라고 하겠다.

## 參考文獻

### <단행본>

- 교육부(1998).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2000). 「고등학교 공통사회 교과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1997). 「고등학교 경제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1998). 「고등학교 공통사회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1998).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1995).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김경근(1993). 「韓國 高等學生의 經濟 認知力 實態」.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김관수(1994). 「中等 社會科 教師의 養成 및 再教育課程과 經濟教育」.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김상규(1996). 「世界 經濟秩序와 經濟教育」. 學文社.
- 이종승(1995). 「교육 연구법」. 배영사.
- 이준구·이창용(1997). 「경제학원론I」. 법문사.
- 이태근 외(1992). 「經濟教育論」. 敎學研究社.
- 임천순(1995). 「선진국의 교과정책과 경제교과 편제」.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조영달 외 (1992). 「韓國 經濟教育의 實態 및 課題」.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조윤성 외(1997). 「학교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생님의 목소리」.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차경수(1998). 「現代의 社會科教育」. 學文社.



- 최병모 외(1997) 「經濟教育 종합교재」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韓國 社會科 敎育研究會(1996). 「韓國社會科敎育學概論」. 敎育科學社.
-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1996). 「반불시대의 경제의식과 소비행태」.
- 황정규(1998).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 Walstad, William B. 외(1994). 「국제적 시각의 경제교육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conomic Education)」. 조명철 역(1997). 문창사.

#### <논문>

- 김영용(1997). “경제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올바른 경제교육을!」. 자유기업센터
- 김정호(1998). “IMF 시대의 올바른 인식과 학교경제교육의 대응방안”. 「경제교육」. 통권 제12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김정호(1997). “경제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올바른 경제 교육을!」. 자유기업센터
- 김향원(1999). “학교 생활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도 방안” 「백록논총」. 창간호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 박용경(1999).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學校 經濟 敎育의 方向”. 「백록논총」. 창간호.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 유병철(1996). “고등학교 경제교육 내용 이해도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성표 · 김예기(1999) “IMF 경제위기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조사”. 「경제교육」. 통권 제14 · 15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이태근(1994). “경제교육의 변천”. 「경제교육연구」. (죽전 이태근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 전홍렬(1993). “한국고등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및 그 결정 변인에 관한 실증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병욱(1994). “중·고 사회교과서 경제교육 내용과 배열의 변천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운룡(1995). “강원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및 그 결정 변인에 관한 실증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조병철(1998). “경제교육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중등학교 경제교육에의 시사점”. 「경제교육」. 통권 제13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1998). “정보경제학을 활용한 사회과 경제교육 방안”. 「경제교육」. 통권 제12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1997). “환경문제에 관한 사회과 경제교육 방안”. 「경제교육」. 통권 제10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최병모(1997). “사회과 교육에서의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연구”. 「경제교육」 통권 제10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1996). “사회과 경제교육론”. 「한국 사회과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 (1994). “학교 경제교육의 목적, 목표 및 교육과정”. 「경제교육연구」. (죽전 이태근 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최선규(1997). “성보화와 경제교육”. 「경제교육」. 통권 제10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한상운(1994). “社會認識 形成過程으로서의 經濟教育”.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허병두(1997) “신문을 활용하는 학교 경제교육” 「경제교육」. 통권 제10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Becker, William (1994). “미국 고등학교 경제학에 대한 연구 : 더욱 깊은 고려.” 「국제적 시각의 경제교육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conomic Education)」 조병철 역(1997). 문창사.

<Abstract>

## **A Study on the Level Economic Literacy of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shi**

Ko, Seung-moo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 Park, Yong-kyung

The present inquiry was devoted to these two purposes' (1) to grasp the accurate economic literacy level in high school students of Cheju-shi (2) to offer basic materials necessary to improve the practice of economic education of high schools in Cheju-shi. A total of 726 boys and girls of 6 high schools in Cheju-shi were selected for the present inquiry. Test of Economic Literacy(TEL), which consisted of 46 questions, was employed as a testing tool.

The result of this inquir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TEL score for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shi was 24.30. Converted into a possible 100, it was 52.83. The students who learned both common social studies and economics got much better marks than the ones who didn't learn either of them or the ones who learned only common social studies. This means that whether students learned economics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ir economic literacy.

Second, students' economic literacy level tested by economic concepts was as follows: students did better than average with the basic economic concepts and microeconomic concepts, while students tended to have a poor understanding of macroeconomic concepts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ncepts relatively. By cognitive steps, students scored somewhat high in knowledge level problems, which are low steps of cognitive aim, while they scored very low in analysis and evaluation level problems.

Third, students' economic literacy level by the characteristics of sampled students was as follows.

- 1) Girls achieved a little higher on the TEL than boys
- 2) The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achiev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 3) The college-preparatory group scored higher than non-college-preparatory group.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cted
- 4) Senior students achieved higher than juniors
- 5) In any school, a high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scholastic achievement level and economic literacy
- 6) By students' fathers' job, office-workers' children achieved highest. The next was the children who engaged in agriculture, fishery and forestry. The third was public officials' and bank clerks' children. The last was the children of those engaging in marketing industry, service industry, manufacturing industry, constructing industry, etc.
- 7) The higher their mothers' scholarships were, the higher students' economic literacy level were,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cted
- 8) The more income parents have, the higher their children achieved, but the children of large income earners, who earn more than three million won in a month, were rather low

In the fourth place, compared with the students in other areas, the students in Cheju-shi gained almost the same mean score. As for the students who learned economics, the students in Cheju-shi were much better than the students in other areas. In the meantime, the students in Cheju-shi who didn't learn economics gained lower than their counterparts.

In conclusion, this inquiry suggests as follows.

First, to make economical education substantial in high schools, economics should be given much weight in the curriculum. As a result, students will be able to have more opportunity to study economics.

Second, to interest students in economic education, it is impossible to ov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compilation of a textbook and of the production of diverse teaching materials.

Third, to make economic education more effective in high schools,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economic teachers through more effective pre- and in-service training programs.

## 고등학생 경제 인지력 검사

안녕하십니까?

이 검사지는 제주시 고등학생들이 경제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바람직한 경제교육의 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문제 풀이에 임해주시면 고등학교의 경제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검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2000년 4월 일

高 勝 武

※ 물음에 알맞은 답의 번호를 ( ) 속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1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고 그 대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우리나라의 전자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겠는가?..... ( )

- 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 ② 양국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 ③ 우리나라는 이익을 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손해를 본다
- ④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익을 보고 우리나라는 손해를 본다.

2 새로운 국립 고등학교를 하나 설립할 경우,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 .... ( )

- ① 새 학교에 교사들 임용하는데 따른 비용
- ② 새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건축비
- ③ 새 학교를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율의 변화
- ④ 새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포기되어야 하는 다른 재화와 용역

3. 모든 경제체제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 )

- ① 수입과 수출간의 균형을 맞추는 일
- ② 정부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일
- ③ 최소한 자원을 최선으로 활용하는 일
- ④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저축을 늘리는 일

4 한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완전 고용되어 있을 때, 어떤 한 상품을 보다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 ①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게 생산을 맡겨야 한다.
- ② 다른 상품의 생산을 줄여야 한다.
- ③ 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져야 한다
- ④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5. 홍길동군은 내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즉시 일년에 1000만원을 벌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학에 진학한다면 일년에 500만원을 수업료를 비롯한 학비로 지출해야 한다 금전적으로 따졌을 때, 홍길동군이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 ( )

- ① 없다                      ② 500만원                      ③ 1000만원                      ④ 1500만원

6. 노동의 전문화 또는 특화(特化)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 ( )

- ① 물가의 상승                      ② 시간당 산출량의 감소
- ③ 경제적 상호 의존도의 증가                      ④ 소득 분배의 균등화

7. 시장경제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무엇인가?..... ( )

- ① 힘있는 노동조합                      ② 정부의 올바른 규제
- ③ 기업가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                      ④ 시장에서의 활발한 경쟁

8.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 ( )



13 어떤 사람의 명목 임금에 50%오른 반면에 그 사람이 사려는 물건들의 가격은 100%올랐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 )

- ① 실질 임금은 상승한다                      ② 실질 임금은 하락한다.  
③ 명목 임금은 하락한다                    ④ 실질임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14. 어떤 상품에 대한 경제적 수요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 )

- ① 각각의 가격에 기업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한 해당 상품의 수량
- ② 각각의 가격에 사람들이 기꺼이 구매하려는 의사를 갖고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수량
- ③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구매하기 원하는 해당 상품의 수량
- ④ 소비자들이 구매할 능력이 있는 해당 상품의 수량

15 청소년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젊은 일꾼들’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최저 임금을 인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하자. 만일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시장경제 체제에서 청소년들의 임금 및 고용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겠는가? ( )

- ① 임금은 상승하고 청소년들의 고용도 증가할 것이다
- ② 임금은 상승하고 청소년들의 고용은 감소할 것이다
- ③ 임금은 하락하고 청소년들의 고용은 증가할 것이다.
- ④ 임금은 상승하고 청소년들의 고용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16 다음 어느 경우에 신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는가?.....( )

- ① 신발의 생산비용을 낮추는 기계를 도입했을 때
- ② 생산자에 의해 보다 많은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 ③ 신발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때
- ④ 신발의 공급이 감소했을 때

17.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구보다는 식품이나 철강이 생활에 더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알



고 있다. 그럼에도 야구 선수가 농부나 철강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 ( )

- ① 선수들을 기르던 고용주가 독점업자들이기 때문에
- ② 선수들은 생산자라기보다는 연예인에 가깝기 때문에
- ③ 농부나 철강 근로자보다는 직업 야구 선수의 수가 적기 때문에
- ④ 훌륭한 선수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 그러한 선수들의 공급이 보다 희소하기 때문에

18. 기업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상품을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한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사려고 한다. 시장경제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무엇을 통해 해결하는가? ..... ( )

- ① 경쟁                      ②정부                      ③ 기업                      ④투표

19. 신문의 경제란에 “독점 기업을 형성하고 있던 커피 재배업자들이 그 기업이 여러 개의 기업들로 분열되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자.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커피 재배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가? ..... ( )

- ① 산출량은 늘고 가격은 떨어진다
- ② 산출량은 줄고 가격은 올라간다
- ③ 자본재의 사용이 늘고 근로자의 고용은 줄어든다.
- ④ 자본재의 사용이 줄고 근로자의 고용도 줄어든다.

20. 개인 소득을 낮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 )

- ①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생산적 능력의 부족
- ②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
- ③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의사의 부족
- ④ 누진적 세율

21. 시장경제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대개 무엇에 의해 결정되겠는가? . . ( )

- ① 노동법의 최저 임금에 관한 규정                      ② 정부의 조치
- ③ 근로자의 높은 생산성                                      ④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기업가들

22 남해의 조그만 항구 도시인 파포 앞 바다에서는 인근 해역에 있는 암초 때문에 6년 동안에 네 번이나 부근을 지나가던 배가 난파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파포로 입항하려는 배를 보호할 등대가 없는 현실을 무척 걱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간 기업들이 나서서 등대를 가설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 )

- ① 선주들은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 ② 등대를 세우면 그것을 가설하고 유지하는데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배들까지도 등대의 혜택을 입기 때문에
- ③ 민간 기업이 등대를 가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는 경우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 ④ 등대를 가설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23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방식이 공해 방지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가?... ( )

- ① 유독성 화학 물질의 사용을 금한다.
- ② 공해에 따른 모든 피해를 줄이는데 자원을 투입한다.
- ③ 공해 방지에 따른 추가적 이익이 추가적 비용을 초과하는 한 공해 방지를 실시한다
- ④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활동을 금지한다

24 사람들이 그들의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은 어떤 종류의 세금을 가장 옹호하겠는가? .. ( )

- ① 간접세                                      ② 부가가치세                      ③ 누진 소득세                      ④ 주민세

25. 생산에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천연 자원,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이라고 한다면, 다음 어떤 것이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가?..... ( )

- ① 지대, 근로자, 화폐                                      ② 석유, 택시 운전사, 유가 증권

③ 철광석, 교사, 화물 자동차

④ 농부, 투자자, 제조업자

26 국민 총생산(GNP)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가?..... ( )

① 판매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 수준

② 중앙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에 의한 총지출

③ 민간 기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나 용역의 수량

④ 한 나라의 국민이 최종적으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의 시장 가치

27 어떤 시점에서 한 경제의 잠재적 산출량의 한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 ( )

① 보유하고 있는 노동, 자본 및 천연 자원의 질과 수량

② 최종적으로 생산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

③ 정부의 규제 및 지출

④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수량

28. 다음 가운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면 높은 실업률에 직면하게 되겠는가?... .. ( )

① 경쟁이 치열할 때

② 수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

③ 총수요가 불충분할 때

④ 숙련된 근로자의 부족이 있을 때

29. 만일 종종 총지출이 잠재적 생산 능력에 못 미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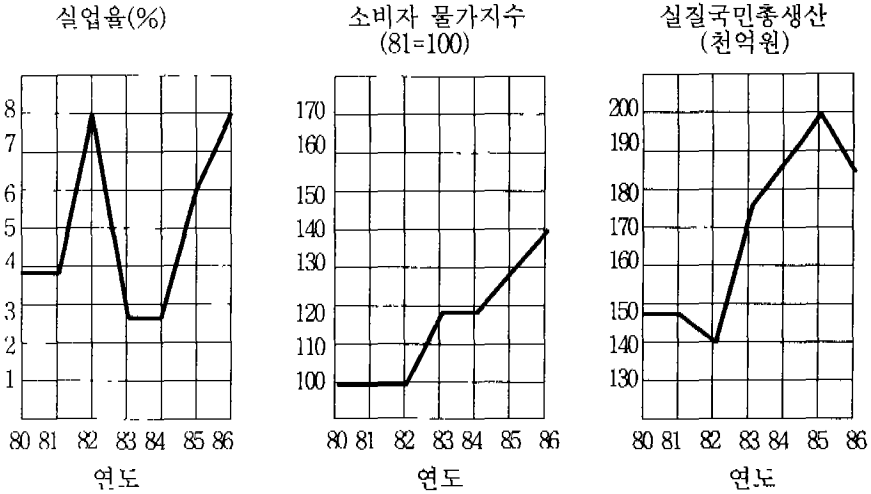
① 생산 자원의 일부가 완전고용 상태에 있지 않게 되어 경제 성장률은 낮아진다

②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경제 성장률은 낮아진다.

③ 비효율적인 공장, 시설 및 노동력은 더 이상 고용되지 않게 되어 경제 성장률은 높아진다

④ 생산이 사치품보다는 생활 필수품에 집중되어 경제 성장률은 높아진다

※ 다음 그림을 보고 문제 30 및 31에 답하십시오.



30. 위 도표에서 실업율의 증가와 물가의 상승이 동시에 발생했던 기간은 언제인가?

- ..... ( )
- ① 81년도에서 82년도 사이                      ② 82년도에서 83년도 사이  
 ③ 83년도에서 84년도 사이                      ④ 84년도에서 85년도 사이

31. 위 도표에서 산출량이 증가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낮았던 기간은 언제인가? .....

- ..... ( )
- ① 81년도에서 82년도 사이                      ② 82년도에서 83년도 사이  
 ③ 83년도에서 84년도 사이                      ④ 84년도에서 85년도 사이

32. 다음 가운데 어떤 집단이 예상치 못했던 물가 상승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가?.....

- ..... ( )
- ① 제조업자              ② 채권 소유자              ③ 채무자              ④ 농부

33. 정부의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이 바람직한 때는 어떤 경우인가?.....

- ..... ( )
- ① 이자율이 낮은 때                      ② 기업의 이익이 적을 때  
 ③ 경제에 불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을 때              ④ 경제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을 때



- ②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한편 공개 시장에서 정부의 공채를 판다.
- ③ 세금을 줄이는 한편 공개 시장에서 정부의 공채를 사들인다.
- ④ 세금을 늘리는 한편 공개 시장에서 정부의 공채를 사들인다.

39 국제무역의 증가에 따른 국가간 특화와 분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 )

- ① 전세계적 실업 사태의 가능성을 높인다.
- ② 전세계의 재화와 용역의 총생산량을 늘린다
- ③ 가난한 국가들의 생활 수준을 낮춘다.
- ④ 국가간의 생활 수준 차이를 없앤다.

40. 만일 영국이 프랑스에 대하여 자동차 생산에 있어 비교우위가 있다면, 다음 어떤 설명이 옳은가?..... ( )

- 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자동차 생산의 특화와 무역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없다
- ② 자동차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프랑스보다는 영국에서 더 높다.
- ③ 자동차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프랑스보다는 영국에서 더 낮다.
- ④ 영국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이익을 볼 것이다.

41. 관세와 관련된 다음 설명 가운데 옳은 것은?..... ( )

- ① 관세는 수출 상품에 대한 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킨다.
- ② 관세는 이로 인해 보호받는 산업에서의 고용을 줄인다.
- ③ 관세는 일부 집단에 이익을 갖다 주지만 이는 다른 집단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④ 관세는 가장 효율적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42 한 국가의 국제 무역수지에 직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 )

- ① 다른 나라들에서 사들인 것보다 많은 액수의 재화를 그들에게 팔았을 때
- ② 다른 나라들에 파는 것보다 많은 액수의 재화를 그들에게서 사들였을 때
- ③ 다른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 투자하는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그들에게 투자했을 때

④ 정부 지출이 조세 수입을 초과할 때

43. 많은 국회의원들이 무역수지의 적자를 바로 잡기 위하여 수입 관세를 올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자. 만일 이러한 주장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되는가?.....( )

- ① 우리의 수입과 수출이 늘어난다.
- ② 우리의 수입과 수출이 줄어든다.
- ③ 우리의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든다
- ④ 우리의 수입은 줄어들고 수출은 늘어난다.

※ 다음 표를 보고 문세 44에 답하십시오.

원화로 환산한 외화의 가격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넷째 해
미국 (달러)	700	650	800	750
일본 (엔)	500	450	420	475
영국 (파운드)	1,500	1,800	1,000	1,600

44. 첫해에서 둘째 해 사이에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변화하였다 이는 파운드화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가?.....( )

- ① 파운드화에 대한 공급의 증가와 수요의 감소
- ② 파운드화에 대한 공급의 감소와 안정적 수요
- ③ 파운드화에 대한 안정적 공급과 수요의 감소
- ④ 파운드화에 대한 안정적 공급과 안정적 수요

45 어떤 기간 동안의 한 국가의 생활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무엇인가?  
.....( )

- ① 1인당 명목 소득
- ③ 실업률

- ② 1인당 실질 소득
- ④ 물가 상승률

46 개발 도상국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 )
- ① 투자를 늘린다
  - ② 소비를 늘린다.
  - ③ 시장제도를 활용한다
  - ④ 중앙집권적 경제 계획을 활용한다

※ 다음은 자료 분류용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를 ( )속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1. 성별 .....( )
  - ① 남자
  - ② 여자
2. 계열 .....( )
  - ① 일반계고등학교
  - ② 실업계고등학교
3. 학년 .....( )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4. 진학 희망 여부 .....( )
  - ① 진학을 희망함
  - ② 진학하지 않음
5. 나의 학교 성적 수준 (학급 기준, 고1은 중3을 기준).....( )
  - ① 10 등 이내
  - ② 11- 20 등 수준
  - ③ 21- 30 등 수준
  - ④ 31등-
6. 보호자의 직업 (아버지 기준) .....( )
  - ① 농업·어업·임업·목축업 등
  - ② 제조업·인쇄업·건설업·토목업 등
  - ③ 판매·서비스업 (도·소매, 숙박, 식당, 이·미용업, 외판 등)
  - ④ 공부원·교수·교사·금융기관 및 은행원 등
  - ⑤ 회사원
  - ⑥ 기타 ( )
7. 보호자의 학력 (어머니 기준) .....( )
  - ① 초등학교 졸업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 이상
8. 가정의 월평균 소득 .....( )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1 - 150만원
  - ③ 151 - 200만원
  - ④ 201 - 250만원
  - ⑤ 251 - 300만원
  - ⑥ 301만원 이상

♠ 끝까지 풀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